

■ 광주시장·전남지사 송년 회견

“경제위기 극복·산업경쟁력 강화”

박광태 광주시장

“내년 예산 조기 집행할 것”

광주시는 내년 시장의 운영 방향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뒀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2일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콜센터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후한 각박동 농수산물 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486억원을 투입한다.

재래시장 활성화 부문에 116억원, 공동상 품권 발행을 위해 10억원이 투자된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제조업 품질향상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천998억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사업을 위해 모두 590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벽을 넘기 위해 내년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를 2천만불로 설정



하고 미국, 일본, 중동 등지에서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60개 기업, 3천억원 투자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기업이전 전담반’을 편성해 기업 투자 유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산업 부문을 주력 투자 유치

업종으로 선정했다.

자동차, 가전, 광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의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차세대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전장 부품설계, 해석장비 구축, 핵심기술 기반 등에 모두 35억원, 자동차 핵심부품·소재·기술개발 등에 50억원이 투입된다.

미래형 클린자동차 부품산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도 본격 착수된다. 핵심 산업인 광산업을 한차원 높게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광기술 융합기술 인프라 구축,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사업, 기술개발 사업에 2012년까지 모두 52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내년에는 142억원을 들여 지원대상 기업 선정, 장비구축사업에 착수한다. 광산업 3단계 사업에서는 LED 기반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해 LED조명 10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2009 광주 세계광엑스포 개최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녹색성장·해양경제권 실현 주력”

박준영 전남도지사

“J프로젝트 6개 지구 추진”

전남도는 오는 2009년에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녹색성장’과 ‘해양경제권’의 실현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을 활용해 고수의 관광·문화브랜드를 창출해내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전남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2일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도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과 투자유치 가속화, 생물산업과 신소재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영남·해남 일대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와 무안기업도시, 나주 공동혁신도시, 남악신도시, 신대국제도시 등 5대 신도시를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는 등 전남을 전국 제일의 녹색산업 중심지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SOC를 확충하고 세계수준의 박람회장을 조성하는 것은 물

론 전남조선타운 개발 등을 통해 서남해안 일대에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서남해안 초광역 해양경제권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F1자동차경주대회가 국내 관광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도 내년도 역점사업에 포함시켰다.

한편, 박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 지구 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J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지구 축소는 없으며, 원래 계획대로 6개 지구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는 “지금 당장 정부와 협의가 안 된다고 사업을 축소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가 나타나면 개발을 하는 형태인 만큼 전체 면적에 대한 논의의 의미가 없으며, 결코 축소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최근 농림수산물부가 J프로젝트 사업예정지인 송촌지구를 대규모 농업회사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공고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도 잘 모르는 일로 확인이 됐으며, 앞으로 조정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권역 재조정’ 요구... ‘5+2’ 새국면

광주시장·전남도지사 ‘새 프로젝트 추가’ 제안

‘5+2 광역경제권 구상’ 권역 재편을 요구하며 선도시업 불참 의사를 밝힌 광주시와 전남도가 22일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기류와 다른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광역경제권 재조정’을 촉구해오던 기존의 방침을 바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해 주도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간 장기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가 광역경제권 구상과 관련, 큰틀에서 변화는 주지 못하지만 이와 맞먹는 선물(?)을 호남권에 줄 경우 호남권도 마지못해 받

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로도 받아들여진다. 박광태 광주시장이 이날 “5+2 광역경제권이 2012년까지 시한부로 개발되고 이 구조가 고착되지 않도록 보장받는다면 다른 실리를 쟁길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시장은 또 “균형발전법을 개정하면서 ‘균형’을 빼고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광주시민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이날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논의를 통해 호남의 선도시업에 다른 산업을 추가 또는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해 정부와 밀담대화

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광역경제권을 수정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정부와 계속 갈등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광주시와 보조를 맞춰 호남권에서 전북을 분리하는 쪽으로 광역경제권 권역 재조정을 요구했던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광역경제권 구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박 시장과, 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던 박 지사의 이 같은 발언들은 정부의 새로운 ‘제안’ 여부에 따라 기존의 입장이 변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균형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영산강 뱃길 복원·공동국가산단 포함

4개 부처 업무보고 광주·전남 어떤 사업 담았나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을 비롯해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 광주 제3순환도로 사업 등이 내년도 정부 주요 정책에 포함됐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물부, 환경부 등은 22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등은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돼 중점 관리된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과 관련,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지 않고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에 제시된 것들이어서 부산 북항조기 재개발·부산경남권 물물제 해소 사업 등 영남권에는 대형 신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될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오는 2012년까지 13조9천억원이 투자된다. 농림수산물부도 ‘4대강 살리기’를 농어촌 활성화 계기로 삼기 위해 인근 지역 농어촌 마을을 정비하고 향토 자원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나주, 함평을 비롯해 안동, 충주, 연기 등 5개 지역의 마을 개발과 산업지원에 모두 39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을 위해 ‘중앙-지방 합동지원단’을 구성, 각종 지역 개발사업이나 재해예방사업 때 4대강 주변 지역과 소하천 정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광주 제3순환도로 2구간 착공을 201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도하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지방 광역시에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증가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매입임대주택 대상 주택을 지방에서는 85㎡이하에서 149㎡이하로 확대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 8월에 박람회장 공사에 들어가며, 국제심포지엄 및 BIE순회역사박람회도 개최(2009년 12월)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겨울방학을 맞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교수진 총출강!! 합격의 확신을 드립니다.=

# 7.9급 공무원 특강

30주부특별반, 40주부특별반, 30주·아반 생활리 강의중, 정육무세사원찰약공관정진호지산방술과, 10월기능직할, 입면상시,한국사2과목.

09년 시험안내, 개강, 내년 소방직(시·도별 채용인원)

시행일자: 09.12.2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원: 09.12.2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원: 09.12.2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www.mdgosl.co.kr 222-4560

# 새롭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월 2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국비지원, 고용보험제자 교육비환급, 장학금 60명

하당지구 목동기동병원 앞 대성학원 3층 건물 (061)277-8111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 학원이건, 오지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롭고빌딩 4층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영남 평균 96.7점)

최강의 교수진! 저자적강! 신관식 교수 서울 강남, 노량진 출강!! 이건호 교수 서울 중로, 분당 출강!! 이윤중 교수 서울 노량진, 분당 출강!! 장경중 교수 현, 세우사 9년 세법 강의!!

주목관리사 "2009년 9월 시험 예상" 첫진도 개강 1월 2일

# 광주고시학원

직접인용 위한 고용보험 한금계정 본원 ☎ 227-8003 전라도 맞은편 3층, 현, 세우사 9년 세법 강의!! 국비지원 개강일 매월, 현, 세우사 9년 세법 강의!! 현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칠단점 4층

\* 12월 무료청강 환영합니다